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2017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경상북도의회 개막식 참여

출 장 개 요

- ◆ 기 간 : 2017. 11. 8 ~ 11. 12.
- ◆ 방 문 국 : 베트남
- ◆ 인 원 : 30명(도의원 16 , 수행공무원 14)
- ◆ 주요내용 : 사전 확인, 개막식 참석



경 상 북 도 의 회

I. 출장개요

○ 2017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 참석 및 현장확인 활동을 통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문화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개 요

- 출 장 지 : 베트남(하롱베이, 구찌, 호찌민)
- 기 간 : 2017. 11. 8 ~ 11. 12.
- 인 원 : 30명(도의원 16, 수행공무원 14)
- 주요내용 : 호찌민 엑스포 개막식 참석
 - 베트남 세계문화유산 하롱베이 벤치마킹
 - 주요 자연유산 견학을 통한 유네스코 유산 보존 정책 학습
 - 베트남 전쟁 박물관 견학을 통한 현대사 자원화
 - 베트남 전쟁 역사인 구찌 탐방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역사교육
 - 「2017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 사전 점검
 - 「2017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리셉션 참석
 - 「2017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 참석
 - 「2017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경제바자르 현장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비고
1	의장	김응규	
2	문화환경위원	배한철	
3	"	이운식	
4	"	김인중	
5	"	이진락	
6	"	장대진	
7	"	장용훈	
8	"	조주홍	
9	농수산위원	나기보	
10	"	이동호	
11	"	배영애	
12	"	윤종도	
13	"	이수경	
14	"	최태림	
15	"	한창화	
16	"	황재철	
17	사무처장	김중권	
18	총무담당관실	금경돈	
19	"	유명근	
20	"	김기환	
21	"	황정현	
22	입법정책관	이복영	
23	문화환경수산전문위원	김성출	
24	문화환경전문위원실	박세진	
25	"	장병삼	
26	"	금재정	
27	"	송희숙	
28	농수산전문위원실	김연근	
29	"	주지용	
30	"	박재숙	

일정

날짜	지역	주요일정	시간	비고
11.8 (수)	김해공항	•김해공항 도착	08:00	
		•김해공항 출발	10:30	
	하노이	•하노이 도착(5시간 소요)	14:00	
		•하노이→하롱베이 이동(4시간)	15:30	
	하롱베이	•숙소 도착	19:30	
11.9 (목)	하롱베이	•기상 및 조식	07:30	
		•하롱베이 자연유산 보존정책 탐방	09:00	
		•하롱베이→하노이 이동(4시간)	13:30	
	하노이	•하노이 공항 출발	21:25	
	호찌민	•호찌민 공항 도착	23:30	
		•숙소 도착	00:10	
11.10 (금)	호찌민	• 전쟁기념관 관람	09:00	엑스포 조직위
		•호찌민 귀환(기자단 동행취재)	15:00	
		•행사장 사전 점검 (응우옌후에 거리)	16:00	
		•행사장 사전 점검 (9.23공원)	16:40	
		•이동(행사장→회의장)	17:50	
		•엑스포 추진상황 사전 보고	18:00	
		•만찬	19:00	
11.11 (토)	호찌민	•구찌(지하땅굴) 이동	09:00	개막식 19시
	구찌	•구찌터널 관람	11:00	
	호찌민	•호찌민 귀환(90분 소요)	13:30	
		•행사장 도착(경제바자르 현장)	15:30	
		•리셉션(렉스호텔, 만찬)	17:00	
		•엑스포 개막식 참여	18:30	
		•공항이동	21:00	
11.12 (일)	호찌민	•호찌민 공항 출국	00:05	
	인천	•인천공항 도착	07:10	

II. 베트남 현황

일반사항

- 위 치 : 인도차이나반도 가장 동쪽
- 수 도 : 하노이(Ha Noi, 인구758만명)
- 인구/면적 : 9천5백만명 ('15년) / 330,341km²(한반도의 1.5배)
- 정치형태 : 일당제 사회주의 공화국
- G D P : 1,934억불('15년 기준, 1인당 2,109불)
 - ※ 교역액 : 3,280억불(수출 1,624억불, 수입 1,656억불)
 - ※ 산업구조 : 제조(17%), 농업(14%), 광업(11%), 금융(5%), 관광(4%), 어업(4%)
- 민족구성 : 베트남족(87%) 외 54개 소수민족
- 언어/종교 : 베트남어 / 불교(9,3%), 카톨릭(6,7%)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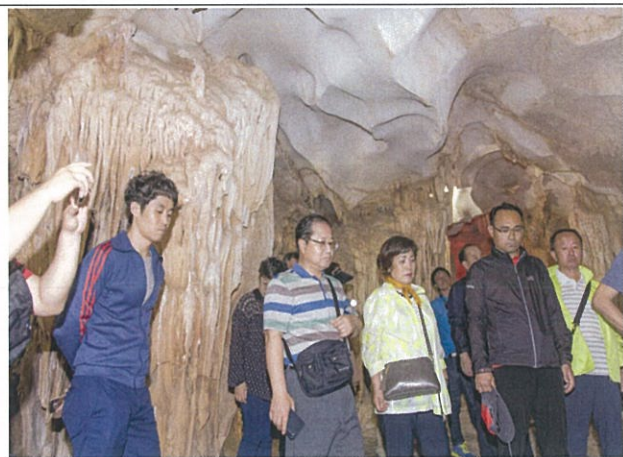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관계

- 주요연혁 : '92년 수교 → '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 '15년 한-베 FTA
 - ※ 공관현황 : 상주 대사관(' 92.12 설치), ※ 이혁 대사 부임(' 16.5)
- 수출입현황('15년) : 수출 278억불(道 22억불), 수입 98억불(道 7억불)
 - ※ 한국의 4위 수출 상대국
- 투자현황('15년) : 對베트남 451억불, 對한 1,500만불
 - ※ 베트남 1위 투자국(3년 연속 1위), 한국기업 4,600여개 진출
- 교민현황 : 베트남 내 한국인 약14만명, 한국 내 베트남인 약13만명

Ⅲ. 주요 내용

■ 하롱베이 세계문화 유산 탐방

베트남 북부에 있는 만으로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회암 기둥으로 이루어진 바다 경치가 장관이며 대부분 인간이 살지 않아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으며 생물학적으로도 보존이 잘 되어있다. 하롱베이 국립공원은 영화 인도차이나의 배경이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하롱베이는 하늘에서 용이 내려온 만이라는 뜻으로 1994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특별 보호되고 있다. 하롱베이는 베트남의 상징적인 아이콘이자 자연의 보고이다. 베트남은 하롱베이를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찾고 있다.



하롱베이 관람

⇒ 베트남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롱베이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관광객이 배를 타거나 작은 섬을 방문하는 등 최대한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 경북도 문화재 중 명승,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전쟁 박물관 관람

1965년부터 1975년까지 계속된 베트남전쟁 당시의 전쟁범죄를 고발하고,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이 베트남에 가했던 잔혹한 행위를 중심으로 전시되고 있는데, 개관 당시에는 한국군과 관련된 자료도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군 관련 자료는 대부분 제거되고, 현재는 전쟁 중 5만 명의 한국군이 참전했다는 기록과 부산을 떠나 베트남에 도착해 배에서 내리는 모습 등 일부 자료만이 전시되고 있다.



전쟁박물관 관람

⇒ 전쟁박물관은 역사의 교훈의 장이자 후대 나라사랑 교육의 장으로 활용 시 참고할만한 좋은 자료이다. 아픈 역사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후대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이 참 인상 깊었다. 우리 역사 중 한일합방, 6·25전쟁, 4·3사건, 5·18 등 가슴 아픈 역사를 가공 없이 후대에 게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구찌터널

호찌민에서 서북쪽으로 약 7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구찌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유명한 땅굴이다. 구찌시에서도 20km를 더 들어가야 하며, 독립유공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베트남 전 당시 베트콩들이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 근거지를 두고 호찌민을 공격하기 전 오랜 시간에 걸쳐 땅굴을 파서 만든 지하요새로, 원래는 프랑스인에 대항하기 위해 1948~1954년에 걸친 인도차이나 전쟁 때 48km의 땅굴이 먼저 만들어졌다. 그 후 베트남 전쟁 때인 1967년까지 2백km를 더 파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지하터널의 깊이는 30m, 지하 3층 규모이며 50km 거리에 1,3000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달하며, 관광객들은 구찌터널 내부에 직접 들어가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는 유물이 남아있다.

중요 연결 지점에는 위장통로와 함정도 있으며, 입구는 잎과 흙으로 교묘하게 위장이 되어있어 현지민이나 베트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도록 위장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구찌 터널

⇒ 베트남 전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며 치열한 투쟁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아픈 역사와 그 시대 사람들의 처절한 삶을 보며 전쟁의 비극을 보고 평화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경북에 있는 6·25전쟁 당시 영덕 장사상륙작전에 투입된 문산호와 낙동강 방어전투의 흔적인 왜관철교, 낙동강전투전승기념행사,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등 아픈 우리 역사를 후대가 기억하고 교육하는 역사, 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행사장 사전점검



D-1 아직 완성하지 못한 행사장

⇒ 행사 전날 임에도 아직까지 행사장 완성을 못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 준비가 소홀함을 알 수 있었음. 사전 불업을 위해 행사장 완성을 서둘러야 함에도 현지에서 준비하고 있어 사정이 넉넉지 않았음. 행사장 사전 점검은 기자단 동행취재를 하면서 진행했으며 응우옌후에 거리, 9·23 공원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할 점, 준비사항을 체크하는 기회였음



행사장 현장확인(기자단 통행취재) - 응우옌후에 거리



- 한국문화존 개관식 등 - 9·23공원

⇒ 개막식 장 현장점검에 이어 9·23공원에 위치한 메인전시관인 한국 문화존을 점검했다. 한국문화존은 신라역사문화관, 경상북도·경주시 홍보관, 새마을관, 유교문화교류관 등 4개의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의원들의 업무보고시에 전시관의 크기, 관람 동선 등 의원들이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자리였다.

■ 경제바자르 현장



경제바자르 행사 참여(김밥 만들기, 경산 화장품 전시 클루엔코)

<농수산 경제바자르>

9·23공원에서 개최된 경북 농식품 홍보·판촉 행사는 최근 한류문화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시장에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경북도 최고 문화상품인 엑스포와 연계해 도내 농식품 수출 외연 확대를 위해 많은 외국인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 기간 내 우수 농식품 수출상담 창구로 활용할 '경북도 농식품 홍보관' 현판 제막과 함께 농식품 수출 비즈니스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김밥 만들기 행사와 한류와 더불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 김치를 베트남에 홍보하기 위해 경북도여성단체협의회원들이 영양 고춧가루, 의성 마늘 등 김치재료를 직접 한국에서 가져와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들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고 나눔 행사도 가져 엑스포 행사 중 최고의 인기코너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의원들도 엑스포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도 통합브랜드 '데일리' 명품 사과, 배 등 신선과일 시식'

나눔 행사를 펼쳐 경북도 명품 과일의 맛을 선보였다.

<화장품 등 산업 경제바자르>

경산시가 현재 추진중인 K뷰티 전시장이 이번 경제바자르의 핵심이다. 특히 경산 화장품 해외상설전시판매장 1호점도 개소하는 등 현재 경북도의 핵심 전략사업인 K뷰티를 엑스포와 연계하는 계기였다. 호찌민 엑스포를 통한 경산의 화장품 업체들의 수출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어 아시아 허브로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번부터 문화엑스포를 넘어 경제엑스포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장에 조성된 클루엔코 수출상담과에는 총 2만 5천명이상이 찾았다고 밝혔다. 또한 28건의 수출 상담이 이어졌으며 (주)허니스트는 약 4억원 규모의 계약도 체결했다.

추진상황 보고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의 추진상황을 현장확인하고 준비상황을 체크하면서 제290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엑스포 추진을 위한 의원들의 의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장이었다.

⇒ 의원들이 엑스포 전시관 크기, 전시 내용 등 꼼꼼하게 확인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엑스포 조직의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특히 이번 엑스포부터 경제엑스포로 추진함에 따른 준비상황, 그리고 앞으로 활용방안,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막바지 점검사항을 엑스포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장이었다.



추진상황 보고 (식사 겸 현지 보고)

■ 리셉션 및 엑스포 개막식 참석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 수교 25주년이고, FTA(2015년)가 발효되고 바닷길 실크로드를 향한 첫발이고 호찌민 엑스포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바닷길을 통한 최초의 문화수출이다.

개막식 전에 환영리셉션을 통해 한국(경주)-베트남(호찌민) 상호간 교류를 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는 장이었다. 이어 응우옌후에 거리 개막식 참석하였다. 응우옌후에 거리는 언제나 인파로 북적거린다. 이 거리가 외국 행사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호찌민시가 엑스포를 통한 양국 문화·경제교류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영상도 이날 개막식을 빛냈다. 베트남 다낭에서 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필리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담았다.



리셉션 참석



개막식 참여

⇒경상북도가 문화를 수출하고 국격을 높이는 행사로 추진하는 엑스포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터키 이스탄불에 이어 해외에서 열리는 세 번째 행사이다. 경북도의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경북의 정체성과 우수한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이자 경북의 정수를 보이고 있다. 지방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고 동남아의 관광객들이 한국, 특히 경주를 찾아 관광발전이 더불어 발생하고 단순한 문화잔치가 아니라 통상 교류를 통한 번영의 엑스포가 되었으면 한다.

IV. 총평

문화엑스포는 총 8회(1998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7년, 2011년, 2013년, 2015년)에 걸친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호찌민에서 세계 문화엑스포 개최했다.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되새기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달성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종합문화박람회이다.

<문화엑스포 추진실적>

(단위 : 개국, 명, 원)

구 분	주 제	참가국(인원)	관람객(국내/국외)	사업비
제1회(1998년)	새 천년의 미소	48 (7,000)	304만 (293/11)	404억
제2회(2000년)	새 천년의 숨결	81 (9,000)	172만 (159/13)	355억
제3회(2003년)	천마의 꿈	55 (10,000)	200만 (141/59)	210억
제4회(2006년)	오래된 미래 (앙코르와트-캄보디아)	32 (10,000)	45만	60억
제5회(2007년)	천년의 빛 천년의 창	33 (10,000)	140만 (130/10)	170억
제6회(2011년)	천년의 이야기 사랑, 빛 그리고 자연	49 (10,000)	155만 (85/70)	180억
제7회(2013년)	길 만남, 그리고 동행 (이스탄불-터키)	40 (10,000)	487만	160억
제8회(2015년)	유라시아 문화특급	47(10,000)	146만	147.5억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산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을 확장시키고자 함 베트남과의 공동개최를 통해 양국 간 문화의 벽을 없애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여 인류 화합과 꿈을 융합하고자 함
⇒ 경주의 지역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 중심지로서의 위상 재정립하고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창출 함. 관광뿐만아니라 경제엑스포로 추진함으로써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하고자 함.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문화활동 인프라 및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했다.